남가주 동신교회

가 정 예 배 지

2026년 11월 첫째주

도입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 욱 사랑 | More Love to Thee, O Christ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1. More love 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Hear Thou the prayer I make On bended knee.
   This is my earnest plea: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2. Once earthly joy I craved, Sought peace and rest;
   Now Thee alone I seek, Give what is best.
   This all my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3. Then shall my latest breath Whisper Thy praise;
   This be the parting cry My heart shall raise.
   This still its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Amen

본문 요한복음 4: 23-25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John 4: 23-25

23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25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설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찬양을 부르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예배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을 찾으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올바른 장소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안정감, 정체성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공, 인기, 성취,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의 근거로 삼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신뢰와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24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깨우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랑과 삶 전체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상처와 깨어진 삶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셨지만, 은혜로 다가가셔서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더 올바르게 예배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자신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와 은혜를 깨달을 때, 예배는 의무가 아닌 사랑과 감사, 헌신의 기쁨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범한 물을 얻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삶의 가장 깊은 만족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실 때, 우리의 우선순위와 인간관계, 선택과 결정, 그리고 삶의 방식이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교

What does it mean to truly worship God? Many Christians associate worship with singing praise songs, attending church services, or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ies. While these are important expressions of worship, Jesus teaches us that true worship goes much deeper. In John 4, Jesus encounters a Samaritan woman who has been searching for satisfaction through relationships. When she raises the question of the proper place to worship, Jesus redirects her attention from where we worship to what true worship really means. Every human being is a worshiper. We naturally devote our hearts to whatever we believe will bring us happiness, security, identity, and fulfillment. For the Samaritan woman, relationships had become a source of satisfaction. For us, it might be success, popularity, achievements, relationships, or even ourselves. Whatever we treasure most, depend on for happiness, and build our identity around can become the object of our worship. True worship begins when we recognize that God alone is worthy of our highest love, trust, and devotion. Jesus declares in John 4:23–24 that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Worshiping in truth means knowing and worshiping God as He has revealed Himself through His Word and ultimately through Jesus Christ. Worshiping in spirit means worshiping sincerely from a heart awakened by the Holy Spirit, rather than merely performing outward religious activities. We can sing worship songs without truly worshiping. We can attend church faithfully while our hearts remain far from God. True worship involves responding to God with our minds, hearts, affections, and ultimately our entire lives. What makes this encounter remarkable is that Jesus reveals Himself as the Messiah to a woman whose life is filled with brokenness and disappointment. Jesus knows her past, yet He approaches her with grace and offers her living water. He does not simply teach her how to worship correctly; He reveals Himself as the only One who can satisfy her deepest spiritual thirst. True worship is not something we produce through religious effort. It is our response to discovering who Jesus is and how deeply He has loved us. When we recognize the infinite worth of Jesus and the grace He offers, worship becomes more than an obligation. It becomes a joyful response of love, gratitude, and surrender. The Samaritan woman came to the well looking for ordinary water, but she encountered the Savior who could satisfy her soul. In the same way, Jesus invites us to examine what we truly worship and where we seek our deepest satisfaction. Worship is not simply about what we sing on Sunday, but about what our hearts treasure every day. When Jesus becomes our greatest treasure, our priorities, relationships, decisions, and the way we live begin to reflect His worth.

나눔질문

1.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요즘 내가 행복, 안정감,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성공, 인정, 일, 관계 등)은 무엇인가요?

   The Samaritan woman sought satisfaction through relationships. What are some things (success, recognition,work, relationships, etc.) that you currently lean on or pour your heart into for happiness and security more than God?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나의 예배 생활(주일 예배, 기도, 찬양)은 마음을 다한 진실한 반응이었나요?아니면 익숙한 종교적 습관에 가까웠나요?

   Reflecting on worshiping "in spirit and truth," has your recent worship (Sunday services, prayer, praising) been a heartfelt response to God, or has it felt more like a familiar religious routine?

3.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생수로 다가오셨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변함없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Jesus knew all of the Samaritan woman's pain and past, yet He approached her with grace and living water without condemnation. When have you experienced Jesus meeting you with unfailing grace despite knowing your weaknesses and shortcomings?

마침기도

참된 만족이 되시는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rd, our true satisfaction, help us set aside worldly pursuits and cherish Jesus as our family's greatest treasure.Throughout this week, let our words, actions, and daily lives reflect Your grace and wor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